

귀농·귀촌인 정착 돕는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귀농인의 집 운영

무주군이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올해 1억3,000여만원을 확보하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귀농인의 집 등 3개 귀농·귀촌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설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단기거주와 농가견학, 지역탐색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체류를 돕고 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보 취득과 농가견학, 방향설정, 현지 탐색을 위해 거주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지상 2층 115.47㎡ 규모에 관리실과 세미나실, 생활실 등을 갖추고 있다.

모두 10동의 시설이 마련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서는 영농기초 이론과 실습교육이 이뤄지며, 시설하우스 작물 관리와 유지 등을 중점 교육하면서 영농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9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군은 이 곳에 입주할 교육생 10명을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영농실습과 현장교육, 귀농귀촌



무주군은 올해 1억3,000여만원을 확보하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사진)과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귀농인의 집 등 3개 귀농·귀촌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한다.

정착과 관련된 실용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 희망자들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거주 공간 외에도 예비 귀농인들이 실질적인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족실습농장도 조성해 놓고 함께 운영 중이다.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농, 농기계, 소양 등에 관한 교육과 함께 지역민과 연대할 수 있는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성과 무풍에 소재한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인들의 임시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거주기간 동안 농촌생활과 주변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민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강혜경 귀농귀촌 팀장은 "귀농·귀촌 후 농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와 농업 기술 부족 등으로 정착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며 "귀농 귀촌 임시 거주시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의정활동 道 상위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발표 실태조사 보고서 누락된 5분 발언 반영 수정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의 전반기 의정활동이 활발히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무주군의회 의정활동 지표는 전북지역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지만 실태 조사 표본 자료가 누락돼 공개된 지표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1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하고 전북도내 주요 언론사가 일제히 보도한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 해당 자료에 5분 발언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지표가 낮게 평가됐으나 이후 수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1인당 질의횟수와 5분 발언횟수, 조례안 발의횟수 등을 합산한 무주군의회 정당지표 의정활동 평균은 6.83으로 전북도 평균

8.81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였다. 하지만 누락된 5분 발언 횟수가 반영되자 이 점수는 9.67로 급격히 상승해 전북도 상위권에 진입하기 충분한 점수가 됐고 전북도 평균도 약간 상승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무주군의회는 "여러 의원이 적지 않은 5분 발언을 하며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한 결과 신규 사업이 입안되고 미비한 점은 시정되는 등 적잖은 의정활동 성과가 있었으나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며 "늦었지만 해당 내용이 보도돼 의정성과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무주군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1억 4,000여만원이 투입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읍·면 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철조망과 태양광울타리 등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60% 보조, 500만원 한도)할 예정으로 26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보조금 지원 한도도 기존 200여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2년간 138건 3만1,000㎡의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시설 지원 외에도 피해보상 사업과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협회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지난 2년간 138건 3만1,000㎡의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시설 지원 외에도 피해보상 사업과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협회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연구소 개발기술이전 계약 체결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박충범)는 최근 진안관내 홍삼제품 가공기업인 (주)에코파낙스(대표 김성훈)와 '홍삼 및 한방 소재를 이용한 숙취 해소제품의 제조 방법', '진안홍삼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방법' 등 2가지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술은 지난해 진안홍삼연구소가 연구 개발한 것으로 진안산 홍삼과 숙취해소에 좋은 한방 소재를 함유하는 홍삼 음료 제품의 제조 방법과 흑삼 제조 시 발생 될 수 있는 발암 물질로부터의 안전함과 기능성 성분 함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진안홍삼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방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119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9일 안전강화를 기원하며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119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1월 9일 제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인천광역시에서 처음 시작된 SNS 캠페인 활동으로 '1-하나의 집 차량파다, 1-하나의 소화기 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 사진을 홍보하는 SNS 캠페인이다.



도 8개소에 120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2018년부터 재난취약가구에 4,461대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500세대에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군민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탈탈 플라스틱 실천운동 동참

무주군 황인홍 군수가 지난 10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 속 탈탈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SNS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생활 속 탈탈 플라스틱 실천운동은 플라스틱을 줄여 지구환경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거부하 '고' 해야 할 한 가지를 실천하 '고'를 강조한 일명 '고고 챌린지'다.



'고고 챌린지'의 첫 주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빨대 거절, 텀블러 사용)으로 지난달 4일부터 8개 지역 단체장들이 참여했으며 황인홍 군수는 가장 군수의 지목을 받아 9번째 주자가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다음 주자로 김정섭 공주시장과 최승준 정선군수, 김주수 의성군수를 지목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양봉농가 확대 지급

4월 3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진안군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대상자를 양봉농가까지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모집

장수군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안정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창업 지원을 펼친다.

장수군은 이달 22일까지 청년 창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창업초기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2명으로 사업 참여 자격

이 있는 자는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로서, 사업기간동안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관외에 거주하는 청년이 사업을 희망할 경우, 사업 참여자 선정 통보 기준 1개월 이내에 전입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한다.

사업비는 1명당 3,000만원(자부담 40%)이며, 컨설팅비 12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성업, 프랜차이즈 등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22일까지 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